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1장 의로운 삶을 살며

『산상설교』 하권 제31장, 인쇄 9~23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1~4

❓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상을 바라는 건 괜찮은 걸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마태복음 6장이 산상설교 전체에서 어디에 있는지 짚는다. 6장은 신앙생활(1~18절)과 생활 일반(19~34절)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관점으로 다룬다. 이어 6장 1절이 구제·기도·금식이라는 세 실례 앞에 놓인 서론이라고 보고, '구제'보다 '의'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다음 1절에서 네 가지 보조 원리를 끌어낸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묘한 균형 위에 있다. 궁극의 선택은 자아냐 하나님이냐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보상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제에 이 원리를 적용한다. 남에게 알리지 말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기록하지 말고, 장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결론으로 간다.

📜 절별 정리

📜 1. 6장의 자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의 구조를 다시 정리한다. 5장 3~12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팔복)이다. 팔복은 산상설교 첫머리의 여덟 가지 복을 말한다. 5장 13~16절은 그런 사람과 세상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5장 17~48절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율법의 관계를 다룬다. 6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다룬다. 19~34절은 먹고 입고 사는 일과 가정,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근심'을 다룬다. 로이드 존스는 회심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가장 큰 오류로 꼽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정과 올가미로 가득하다. 그는 존 번연 같은 이들이 고전에서 이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했다고 말한다. 또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보면, 많은 이가 이 두 측면 가운데 하나를 소홀히 해서 기쁨을 잃었다고 한다. 그래서 6장은 우리 앞에 거울을 들이대는 '고통스러운 장'이다. 그래도 그는 이것을 감사한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달려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1. 6장의 열쇠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2. 1~18절은 신앙생활, 19~34절은 생활 일반이다
3. 회심해도 삶의 난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4. 6장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장이다
5. 자기를 바로 알아야 그리스도께 달려간다

> **마태복음 5:3-12**
>
> 산상설교 첫 대목, 그리스도인의 성품(팔복)
>
>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 **마태복음 5:13-16**
>
> 둘째 대목,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
>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마태복음 5:17-48

셋째 대목,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

마태복음 5:20

서기관·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6장의 대조 배경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 2. 1절은 서론이다: '구제'가 아니라 '의'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의 배열을 교향곡에 견준다. 교향곡에서는 주제가 먼저 나오고, 여러 동기가 전개된 뒤 끝에서 하나로 모인다. 산상설교도 같다. 1절이 일반 원리를 세우고, 2~18절이 구제·기도·금식이라는 세 실례로 그 원리를 풀어 간다. 그는 신앙생활이 결국 이 셋으로 나뉜다고 본다. 남을 돕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육을 억제하는 일이다. 여기서 번역 문제가 나온다. 흠정역(1611년 영어 성경)은 1절을 “구제를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로 옮겼다. 개정역(19세기 말 영어 개정판)은 “의(경건)를 행하지 말라”로 옮겼다. 그는 개정역이 옳다고 본다. 훌륭한

1. 1절이 원리, 2~18절이 세 가지 실례다
2. 신앙생활은 구제·기도·금식으로 나뉜다
3. 1절은 '구제'보다 '의'로 읽어야 한다
4. 5장의 율법 해석을 실제 행실로 보여 준다

마태복음 6:1

의로운 삶 전체를 다스리는 일반 원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4

첫째 실례, 구제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5-15

둘째 실례, 기도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마태복음 6:16-18

셋째 실례, 금식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3. 첫째 원리: 빛을 비추되 보이려 하지 말라

로이드 존스가 1절에서 끌어내는 첫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미묘하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한다.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금식한 티도 안 내면 사람들이 내 빛을 어떻게 보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는 이것이 겉으로만 모순이라고 답한다. 5장 16절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 6장 1절이 금하는 것은 자기에게 시선을 끄는 일이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로 보여야 하지만, 보이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교회사를 보면 사람들은 늘 두 극단 가운데 하나로 치우쳤다. 한쪽은 자랑하며 과시했고, 다른 쪽은 자기 영광을 너무 두려워해 수도사나 은둔자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균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1. 5:16과 6:1은 겉으로만 모순이다
2. 빛은 비추되 자기에게 시선을 끌지 않는다
3. 한쪽 극단은 과시와 겉치레다
4. 다른 극단은 수도원·은둔으로 물러남이다
5. 균형은 성령의 인도로 지켜진다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6:1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긴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6

골방 기도, 반문이 나오는 지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17-18

금식을 숨기라는 말씀, 같은 반문의 배경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4. 둘째 원리: 결국 자아냐 하나님이냐

1절을 보면 선택이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인 것 같다. 로이드 존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궁극의 선택은 '자아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더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죄의 음흉함이 드러난다. 가장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아주 교활한 이기주의일 수 있다.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원한다. 그 칭찬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좋은 평판이다. 그는 자기 행동의 동기를

1. 선택지는 '사람 vs 하나님'이 아니다
2. 진짜 선택지는 '자아 vs 하나님'이다
3. 남을 기쁘게 하려는 속엔 자기만족이 있다
4. 이타처럼 보이는 이기주의를 경계하라

> **마태복음 6:1**
>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속뜻이 자기 영광임을 밝힘
>
>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 **요한복음 5:44**
>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 믿을 수 없다
>
>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궁극적 선택은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의 선택입니다."

📜 5. 셋째 원리: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잊는 데 있다고 말한다. 삶의 최고 목적은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모범은 그리스도다. 주님은 자기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며, 자기 일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셨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으며, 숨겨질 수 없었지만 늘 자기를 감추려 하셨다. 반대로 주님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 둘째로 기억할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보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상기하라고 한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의 실천』에 대해서는 책 자체를 권하지는 않지만 그 원칙은 추천한다. 그는 이것을 정말 실천하면 위선과 자기 아첨,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사라지고 부흥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된다.

1. 실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는 것이다
2.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
3.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4.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로 시작하라
5. 이 자각이 위선을 없애고 부흥을 부른다

> **요한복음 14:10**
>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님, 하나님 중심의 삶
>
>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 **마태복음 12:20**
>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심,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주님
>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 **마가복음 7:24**
> 숨기려 하셨으나 숨겨질 수 없으셨음
>
>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 **요한복음 5:44**
>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불신앙의 뿌리

창세기 16:13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늘 걸어 둘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누가복음 16:15

사람 앞에서 옳다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시편 139:7-10

하나님 앞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음

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히브리서 4:12-13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남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신다고 본다. 신약은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하는 것을 최고선, 곧 '수뭄 보눔'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니 보상을 바라는 것은 정당한 소원이요 거룩한 포부다. 근거로 세 가지를 든다.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또 신약은 각자 행한 대로 받는 '보상의 심판'을 가르친다. 그런데 보상에는 무서운 반대면이 있다. 사람에게서 보상을 구하면 그것을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하나님께 받을 것은 없다. 그는 자신을 예로 든다.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으로 받을 것을 다 받은 셈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중에게 지난 선행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라고 한다.

1.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건 거룩한 포부다
2. 그리스도·모세·믿음의 선진이 상을 바라봤다
3.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
4. 사람에게 받은 칭찬이 받을 상의 전부가 된다
5. 설교자 자신도 이 경고 아래 있다

> **마태복음 6:1, 6:4**
> 아버지께 받는 상과 받지 못하는 상의 대조
>
> **마태복음 6: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
> **마태복음 6: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마태복음 5:8**
> 하나님을 보는 것, 가장 높은 보상
>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25-26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10

믿음의 사람들은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고린도후서 5:10

행한 대로 받는 보상의 심판이 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 7. 구제에 적용하기: 나팔을 불지 말고, 장부도 쓰지 말라

구제는 돈과 시간, 그 밖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으로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이다. 잘못은 구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알리는' 데 있다. 실제로 나팔을 불지는 않았겠지만, 나팔을 분다는 말은 드러내서 주목을 끄는 행동을 가리킨다. 로이드 존스는 교묘한 예를 든다. 한 부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며 사업을 시작하는 예배를 열었다. 광고 시간에 그녀는 10여 분 동안 이 일은 믿음으로만 해야 하고 모금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자기가 들어 본 가장 효과적인 모금 호소였다고 한다. 그녀를 부정직하다고 하지는 않지만 매우 우려되는 유형이라고

칭찬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 올바른 길은 왼손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그나마 쉽다.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선전을 경멸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감사하다”고 하면 곧바로 바리새인이 된다. 그러니 영적 장부나 손익계산서를 쓰지 말고, 성령의 인도대로 행한 뒤 잊어야 한다. 이것은 갈보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 가능하다. 기록은 하나님이 하신다. 마태복음 25장의 의인들처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날 하나님이 온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1. 잘못은 구제가 아니라 구제를 알리는 것이다
2. '알리지 않겠다'는 말도 나팔이 될 수 있다
3. 자기 자신에게도 선행을 기록하지 말라
4. 남을 멸시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된다
5. 장부는 하나님이 쓰시고 그날 공개해 갚으신다

> **마태복음 6:2**
> 나팔 부는 외식자는 상을 이미 받았다
>
>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마태복음 6:3-4**
> 왼손도 모르게,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심
>
>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누가복음 18:11**
>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숨은 바리새주의
>
>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마태복음 25:35-40

의인은 기억 못 해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21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의 공개 보상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록은 하나님이 하신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의(경건)

여기서는 구제·기도·금식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생활 전체를 가리킨다.

구제
돈과 시간 등 도움이 되는 모든 것으로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아무도 모르는 마음과 행동까지 다 보시고 기억해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육을 억제함(mortify)
금식처럼 몸의 욕구를 눌러 영혼을 다스리는 훈련이다.

수묾 보눔(지고선)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가장 높은 선,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보상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받게 될 평가와 상이다.

흠정역/개정역
1611년 영어 성경(King James)과 19세기 말 영어 개정판(Revised Version)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마태복음 6장 1절은 구제·기도·금식 모두를 다스리는 원리다. 모든 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다.
- 궁극의 선택은 자아냐 하나님이냐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도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자각이 위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십자가와 성령께로 이끈다.

- 선행은 남에게도 나에게도 기록하지 말고 잊으라. 기록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날 공개적으로 갚으신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